

몸값 제한, 시장 못 이겨…ML 사치세 벤치마킹을

4년 80억 인위적 규제…실효성 없어
수십년전 연봉인플레이 겪은 메이저리그
기준 총액 넘을땐 ‘사치세’ 부과 재분배

한국시리즈까지 마치려면 앞으로 1개월은 더 필요하다. 거액이 오가는 프리에이전트(FA) 시장은 그 뒤에 열린다. 아직 페넌트레이스 도중임에도 올해는 FA가 일찌감치 핫이슈로 떠올랐다. 얼마 KBO가 FA 몸값의 과도한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 총액 상한제와 등급제 시행, 자격취득선수단축을 골자로 한 FA 제도 개선을 건넸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폭등한 FA 계약액은 KBO리그 전반의 연봉 인플레이를 촉발하고, 그에 따른 구단 운영의 압박과 부정적 여론 형성이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FA 거품을 견어내지 못하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마저 감돌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4년 총액 80억원’이라는 인위적 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선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제도개선을 통해 나뉘는 출구틀 모색하려는 KBO와 각 구단의 노력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KBO리그가 극소수의 초고액 연봉자들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도 곤란하다. 다만 방법에 있어선 좀더 정교하고 신중한 접근과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최근의 FA 몸값 폭등을 ‘선수 탓’으로만 돌리는 듯한, 태생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프레임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쌍방과실을 일방과실로 포장한 냄새가 풍긴다. 상한제라는 일종의 극약처방을 내놓았지만, 이런 한계를 내포한 개선안으로는 선수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FA 몸값 폭등의 당사자는 선수들만이 아니다. 그간 수십억도 모자라 백억이 넘는 몸값돈을 극소수 FA에게 안겨준 이들

이 누구인가. 언론과 팬들을 상대로는 “FA 몸값이 과도하다”며 불멘소리를 냈던 구단들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FA 몸값 상한제가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과거 외국인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봉 상한선이 유명무실해진 끝에 폐지된 이유 또한 일부 구단들이 현실론을 이유로 일찌감치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이적료를 원하는 메이저리그 구단과 협상할 때 필요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라도 존속시키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그 문제의 상한선이 내년부터 부활한다.

메이저리그는 KBO리그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시장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비교하기도 힘든 수준의 연봉 인플레이를 겪었다. 그에 따른 슬한 진통과 시행착오 역시 경험했다. 지금은 ‘사치세(Luxury Tax·전 구단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연봉총액을 넘어설 경우 거두는 세금)’를 시행하고 있다.

1994년 시즌 도중이다. 메이저리그는

‘샬러리 캡(Salary Cap·전 구단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연봉총액 상한)’을 도입하려다 이듬해까지 이어진 사상 최장의 파업으로 미국 전역을 들끓게 했다. 구단들이 답답해 인위적으로 몸값 거품을 빼려다가 극단적인 노사대치를 불러온 사례다. 물론 선수들도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파업의 여파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쪽은 구단들이었다. 샬러리 캡은 철회했고, 1995년 시즌도 팀당 162게임이 아닌 144게임으로 축소해 치렀다.

KBO와 구단들 또한 선수협이 상한제를 최종적으로 거부했을 때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은 있는지부터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다층적이고 복잡한 성격의 문제를 단순한 방식으로 풀 수 있으리란 환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샬러리 캡에서 한 발 빼(한걸 시장친화적인 또는 온건한) 사치세를 도입한 메이저리그가 KBO리그의 ‘타산지석(他山之石)’일 수 있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최저연봉 올리려면 총액 제한” vs “공정거래법 정면 위반”

-KBO

-선수협

KBO vs 선수협…FA 총액제한 대립

KBO, 몸값 줄이고 구단 비용 감축
선수협 “연봉감액제 있는데 또 제한”

그야말로 첨예한 대립이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와 KBO(한국야구위원회)가 프리에이전트(FA) 제도 개선을 두고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고수하고 있다. 선수협 김선웅 사무총장은 1일 서울시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담회에서 KBO가 내민 제도개선안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 수용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O는 선수협에 FA 등급제와 취득기간 단축, 최저연봉 인상, 부상자명단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FA 몸값 총액 제한(80억원)은 그 반대급부다. 이에 선수협이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각자 생각하는 본질이 달라 벌어진 일이다.



선수협이 KBO의 프리에이전트(FA) 개선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선수협 김선웅 사무총장은 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A 몸값 총액 제한, 허를뿐인 등급제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KBO “최저연봉 인상, 저연봉 선수들 살려야”

KBO는 선수협의 입장과 달리 FA 최고액이 아닌, 현재 2700만원인 최저연봉 인상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장운호 KBO 사무총장은 “올 시즌 기준으로 KBO 등록선수 가운데 53.1%의 연봉이 5000만원 이하다. KB

O 평균연봉이 1억5026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의 선수들이 평균연봉의 3분의1 수준만 받는다는 얘기”라며 “KBO가 추구하는 본질은 최저연봉 인상이다. 단순히 최저연봉을 올린다고 끝이 아니다. 다른 저연봉 선수들의 인상액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최저연봉을 인상하면 그에 따라 외국인선수 연봉과 FA 몸값 총액을 줄일 수밖에 없다. 연봉 수백만원을 더 투자하면 그만큼 선수들의 기량 발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몸값에 거품을 빼면서 구단의 비용감축, 저연봉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모두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선수협 “공정거래법 위반, 몸값 제한 안 돼”

선수협은 연봉감액제도를 예로 들며 상한선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3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선수는 부상을 제외한 이유로 1군에서 말소되면 일당의 50%가 감액된다. 김총장은 “연봉감액제도가 있는 현실점에서 4년 총액 80억원도 보장계약이 아니다”며 “총액 제한은 결국 선수들의 선택권을 빼앗

는 결과다.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선수협은 이 같은 KBO의 제도개선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몸값 총액 제한이라는 큰 문제를 받아들이면서까지 동의해야 하는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선수협의 입장이다.

●첨예한 대립, 장기전 불가피

선수협이 KBO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측의 입장은 팽팽선을 달리게 됐다. 2018시즌이 끝나고 FA 자격을 얻는 양의지(두산 베어스)와 최정(SK 와이번스)도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 KBO 핵심 관계자는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언젠가는 매듭지을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했고, 김 총장은 “구단과 이사회에 개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 작은 부분은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면서도 “당장 한 달 안에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강진 기자 posterboy@donga.com

야구

3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5위 KIA 타이거즈와 7위 롯데 자이언츠는 3.5경기 차로 총총한 간격을 유지 중이다. 두 팀은 4번의 맞대결이 남아있다. 롯데가 극적인 뒤집기를 꿈꿀 수 있는 것도 4번의 맞대결이 있기 때문이다.

PS ‘5위 전쟁’ 최종승자 롯데-KIA 4G에 달렸다

KIA, 롯데전 2승2패만해도 5위 유력

KBO리그 포스트시즌(PS) 마지막 한 자리인 5위 경쟁은 첨가경이다. 5위 KIA 타이거즈부터 7위 롯데 자이언츠까지 3.5경기차로 총총히 모여 있다. 2일부터 잔여 경기 일정이 시작된다. 나란히 4경기를 남겨둔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에게는 뒤집을 기회가 많지 않다. 결국 5강 싸움은 11경기를 남겨둔 KIA와 12경기가 남은 롯데의 ‘2파전’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KBO가 마치 이러한 순위 싸움을 예견한 걸까? KIA와 롯데는 네 번의 맞대결을 남겨뒀다. 특히 시즌 최종일까지 내리세 차례 맞붙는다.

KIA가 유리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5강 확정까지 매직넘버는 9다. 남은 11경기에서 6승5패만 거둬도 승률 5할을 맞추게 된다. 이 경우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의 5강 가능성은 사라지며 롯데는 11승1패를 거둬야 KIA를 확실히 제친다. 롯데와의 맞대결에서 2승2패만 거둬도 5위가 유력해진다.

그럼에도 선수단은 방심하지 않는다. 안치홍은 “우리에게는 아직 여유가 없다. 정규시즌 경기가 많이 남았다.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승수를 쌓겠다”며 잔여경기 ‘올인’을 선언했다.

‘추격자’ 롯데는 상승곡선에 제대로 올라탔다. 최근 11경기에서 9승2패를 거뒀다. 선수단은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일정이 불리하다. 9일 홈에서 KIA와 한 경기를 치른 뒤 이틀날 KT 위즈와 더블헤더를 치른다.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광주로 넘어가 3연전을 치르는 일정이다.

최근 6경기에서 한 차례 3연투 포함 6세이브를 거두며 롯데의 뒷문을 틀어막고 있는 손승락은 “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체력을 걱정해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남은 경기에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최주환 “어퍼스윙 고집 이유? 영입 비밀”

타율 0.331·26홈런 개인최고 기록
고토 타격코치도 선택과 집중 존중

하루 아침에 홈런 타자가 되는 기적은 없다. ‘거포’로 거듭난 최주환(30·두산 베어스)에게도 자신만의 ‘영입 비밀’이 있다.

프로 생활 13년차. 마침내 주전 자리를 꿰찼다. 오랜 시간 품어온 최주환의 열망을 방망이가 대변해 준다. 1일까지 한 시즌 개인 최고 타율(0.331)과 함께 최다 26홈런·107타점을 기록했다. 9월에만 7홈런을 폭발한 그는 생애 첫 30홈런까지 바라보고 있다.

선택과 집중이 통했다. 머릿속에서 레벨 스윙을 아예 지워버렸다. 연습 과정은 물론 경기 전 토스 배팅, T 배팅을 하면서도 어퍼스윙 만을 고집했다. 178cm의 작은 체구에 올 시즌 이전까지만 해도 홈런

타자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고토 고지 코치는 최주환의 판단을 존중했다.

“요즘엔 방망이에 맞을 때 거의 홈런을 직감한다”고 했다. 타구의 질이 몰라보게 개선된 까닭이다. 스스로도 “답장을 살짝 넘기는 타구보다 정말 잘 맞아서 넘어가는 것이 많다”고 평가한다. 충분한 출장 기회에 따른 자신감도 기폭제가 됐다. 그는 “올해와 비교하면 이전에는 자신 있게 방망이를 돌리지 못했다. 2S에 물리는 상황에서는 가져다 맞추는 스윙을 했다”고 돌아봤다.

홈런으로 극적인 순간을 술하게 연출해왔다. 데뷔 첫 홈런(2012년), 포스트 시즌 첫 홈런(2017년) 모두 팀 승리와 발맞춘 그랜드슬램이었다. 다음 무대는 한국시리즈다. 최주환은 “욕심 부리면 안 되지만, 중요한 때 홈런이 나오면 팀도 나도 좋다”며 웃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두산 베어스 최주환은 연습과 실전의 구분 없이 ‘어퍼 스윙’만을 고집한다. 선택과 집중의 효과로 타구의 질이 대폭 향상되면서 생애 첫 두 자릿수 홈런 달성과 함께 30홈런까지 내다보고 있다.

스포츠동아DB